

부인의 취업과 부부의 상호작용 구조에 관한 한일 비교

A Comparison of the Wife's Job and Marital Interac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金恩美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Instructor: Kim, Eun Mi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및 목적 | IV. 결과 및 고찰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wife's job and family life structure of couples, and to compare them between Japan and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a survey of 247 Japanese couples who were residing in Osaka and 235 Korean couples in Deagu, 1992.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The contents of Household works is classified into three factors — daily routine houseworks, child-rearing, econmic-management of household, in Korea, and into two factors — daily routine houseworks, child and economic management, in Japan.

The contents of decision making i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 husband's personal sphere, family life management, wife's personal sphere, and home economic sphere, in Korea, and three factors — husband's personal sphere, economic life management of family, and wife's personal sphere, in Japan.

2. In Korea and Japan, wife's job have not effect o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directly. However, wife's job contribute to husband's share of daily routine houseworks.

I. 문제의 제기 및 목적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부부의 역할구조, 권력구조, 그리고 부부의 정서구조로서의 결혼만족도등의 차원에서 많이 행해져왔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취업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입어, 부인의 취업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 설정은, 물론 그 사회의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요구에 응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유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연구결과에서 암시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의 실증적인 연구의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 같은 유교문화권의 사회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의 부부관계는 여러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왔다.¹⁾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이념을 공유해 왔다고는 하지만, 현대 가족의 특성, 특히 부인의 취업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 배경과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이 부인의 취업 및 부부관계의 변화 정도 혹은 그 방향에 매우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가족 생활 등 제반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처럼, 문화적 가치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말해 「비교법」을 사용하지않고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회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문화적인 비교연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관계의

양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실증되어 왔다. 특히, 부인의 취업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약간의 상반된 결과도 있지만, 대체로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ier & Lewis, 1980; 김명자, 1985; 한남제, 1988; 임정빈·이종숙, 1989). 이와같이 부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 혹은 적응에 미치는 영향(Locksly, 1980; Vannoy et al., 1992)외에도,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Seanz et al., 1989), 그리고 자원이론에 기초해서 부인의 취업이 가사분담구조 (Brayfield, 1992; Coltrane, 1992) 혹은 세력구조(김홍은, 1986)에 미치는 영향등과 같이, 부부관계의 일차적인 영향관계만을 분석해 온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부관계의 세가지 측면, 즉 가사분담구조,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세 변인 전부와 부인의 취업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부인의 취업과 부부상호작용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먼저 부부의 가정내 가사분담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한일간에 비교하고, 나아가 이들 구조의 하위요인들과 부인의 취업 및 부부의 결혼만족도들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간에 비교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부부관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양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문화적 가치규범의 영향으로, 특히 지금까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족되어 온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남편의 가사분담도」와 「부인의 의사결정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해 나아가고자 한다.

1) 예를 들면, 최신태(1986)은 Lewis & Spanier(1979)가 이룩한 결혼의 질에 대한 이론틀을 한국의 부부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동질성 요인이 높으면, 결혼의 질도 높아진다는 이론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김홍은(1986)은 Rodman(1972)의 이론에 기초해서 한국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자원과 세력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평등적역할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상대적 자원과 세력과의 관계가, Rodman은 정적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곡선적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부의 가사역할분담도

부부간의 가정내 역할분담의 정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역할공유도가 높은 영역으로서는 대외적 활동, 여가활동, 자녀양육과 사회화활동이고, 역할공유도가 낮아 부부간에 역할분화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이었다(이성희·김태현, 1989; 김자혜·김미숙, 1990; 김미하, 1990). 최규련(1990)은 이러한 결과를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가정내 성별 분업구조와 전통적인 가치의식 및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다.

부인의 취업에 따른 역할의 공유도를 보면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역할 공유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안병철, 1987; 이성희·김태현, 1989; 김미하, 1990). 그러나 취업주부의 남편의 역할 수행은 부인의 요구에 의한 소극적인 것이거나 또는 부인의 취업으로 야기된 이중 노동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전적으로 가사와 자녀 양육등을 부인과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김미하, 1990).

본 연구에서는 역할공유와 역할분화와 같이 역할분담의 유형별로 분석하기보다는 부부관계의 다른 측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의 「가사분담도」라는 연속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부부의 의사결정도

대부분의 조사연구에서는 의·식·주·경제문제·자녀문제·여가·대외활동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자를 기준으로 부부간의 상대적 권력과 권력의 공유도를 측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남편 우위형, 자율형, 일치형, 부인 우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결과, 의사결정 유형에서 영역별 차를 나타내 자녀문제와 대외 활동, 여가영역은 공동의사결정의 경향이, 의·식·주·경제문제는 일방적 결정경향이 두드러졌다(최규련, 1990).

한편, 부인의 취업에 따른 의사결정권 및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권력이 증가한다는 결과(김홍은, 1986)가 있는 반면, 부인의 직업에 따라 권력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정옥외 1985; 김성희·문숙재, 1989)도 있다.

이와 같이, 부부의 의사결정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내용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의사결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해 나가고자 한다.

3. 부인의 취업, 가사분담도, 의사결정도 및 결혼만족도

먼저, 부인의 취업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결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결과, 그리고 취업자체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변인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 결과등이 있다(최규련, 1990). 첫째, 취업주부와 그 남편이 비취업 주부와 그 남편보다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결과(임정빈외, 1989)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자아특성의 상충과 역할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결과(최신덕, 1986)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역할공유를 증가 시키고 심리적·경제적·사회적인 보상을 준다는 이론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 부인의 취업의 배경요인과 심리적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동기, 부인의 직업지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부인의 취업에 따른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보상과 직업만족, 역할과중 정도와 역할갈등 및 역할 긴장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규련, 1993).

이렇게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부인의 취업과 결혼만족도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역할구조 및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부인의 취업이라는 독립변인과 부부의 결혼만족도라는 종속변인 사이에 부부의 상호작용구조를 나타내는 부부의 가사분담도와 의사결정도를 매개변수로서 설정하여,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일련의 연구 중 그 첫번째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대체적인 경향 파악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부부공동의 여가 활동과 동반적 활동, 남편의 가사참여, 애정표현과 감정교환이 많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동원, 1987; 김화자·윤종희, 1991). 이렇게 남편의 가사참여가 부부의 결혼만족을 증가 시킨다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사의 요인영역별 남편의 참여정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알아 볼 것이다.

또, 의사결정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의사결정 유형중 일치형, 자율형, 또는 평동형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부인 지배형이나 남편 지배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유형별로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동원, 1988).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유형별 분석보다는 부부간의 상대적 「의사결정도」라는 연속적 차원에서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4.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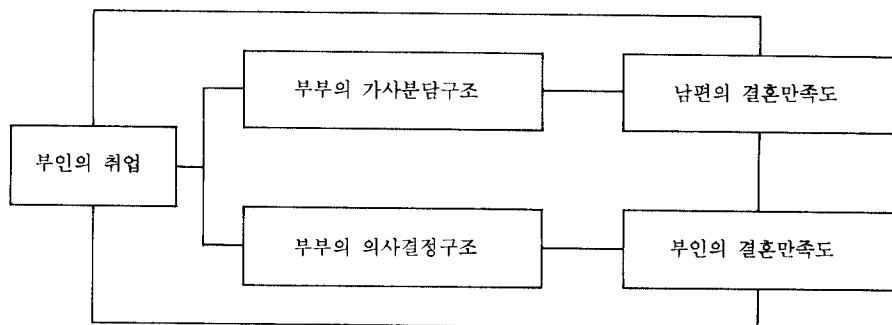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연구 문제를 모형으로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척도의 구성

1) 남편의 가사분담도

가사노동 10개의 영역에 있어서의 남편과 부인의 분담정도를, 1) 주로 부인이 2) 대개 부인이 때로는 남편도 3) 부인과 남편이 같은 정도로 4) 대개 남편이 때로는 부인도 5) 주로 남편이, 의 5단계로 나누어 「주로 부인」부터 순서대로 0에서 4까지의 득점배분을 했다. 그러나, 각각의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 혹은 부인의 평정에는 주관적인 편견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인지독점의 합계를 그 부부의 실제 가사분담도로 보았다. 그 결과, 분담독점의 범위(RANGE)는, 0에서 8까지가 되며, 득점이 8에 가까울수록 남편의 가사분담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부인의 가사분담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의 평정에 기초한 합계득점치가 4점이라는 것은, 0과 8에서 등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부가 가사를 균등히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부인의 의사결정도

10항목의 의사결정내용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가의 정도를, 1)부인 혼자 결정 2)남편에게 의논해서 부인이 결정 3)남편과 부인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 4)부인에게 의논해서 남편이 결정 5)남편 혼자 결정, 의 5단계로 나누어, 「부인 혼자 결정」부터 순서대로 4부터 0까지의 득점 배분을 실시했다. 그러나, 각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남편 혹은 부인의 평정에는 주관적인 편견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합계 평정득점을 의사결정 정도로 보았다. 그 결과, 의사결정 인지 득점의 범위(RANGE)는, 0에서 8까지가 되며, 득점이 8에 가까울수록 부인의 의사결정도는 높아지는 반면, 남편의 의사결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의 평정에 기초한 합계 득점치가 4점이라는 것은, 부부가 동등한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관한 다른 영역의 변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일 척도인 Stephen et.al (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결혼만족도의 척도로서 채택을 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의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한국의 남편이 3.86, 부인이 3.47이었으며, 일본의 남편은 3.94, 부인은 3.76으로서 양국모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경우보다 높았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한국의 경우 0.84이고, 일본의 경우는 0.90이었다.

2. 표본의 추출

표본의 추출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한국의 경우는 대구시 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일본의 경우는 大阪府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한일 양국 모두 가

족발달주기상 교육기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대구시의 7개 구역중 3개의 구역에서 각 1개의 중학교를 임의로 선택하여, 3개의 중학교 학생의 부모에게 총 1000부를 배부하여 856부가 회수되었으나, 부부 양쪽 모두가 유효한 것은 694부였다.

일본의 경우는, 모집단을 大阪府로 한정하여 2개의 중학교 학생 부모에게 980부를 배부하여 502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인맥을 통한 유의선택법에 의해 교육기에 해당하는 부부 170쌍을 선출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배부한 설문지 총 1320부 중에서 분석에 유효한 것은 766부였다.

이와 같이, 양국모두에 있어서 배부한 설문지수에 비해 유효한 설문지수가 저조한것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기 때문에 남편 혹은 부인의 어느 한쪽만의 대답이 불성실하거나 불명료할 경우에도 그 부부의 설문지 모두를 제외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평등교육의 실시라는 이유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학부모의 직업, 학력, 수입등의 가정적 배경이 일체 불문물에 부쳐져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설문지 배부의 의뢰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설문지의 응답은 완전히 자의에 맡겨졌으므로 회수율이 저조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 가족중에서도, 중·고생 자녀를 한 명 이상 포함하고, 부부 둘 다가 초혼이며, 현재 동거하고 있는 도시 지역의 부부로 한정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의 대상이 된 설문지는, 한국의 경우 470부, 일본의 경우는 494부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양국의 부부 모두 40대 초반인 경우가 가장 많다. 평균 연령은, 한국의 남편들의 경우 약 44세, 부인들의 경우 약 40세이고, 일본의 남편들이 약 43세, 부인들이 약 41세로, 양국 대상자의 연령 분포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전체적으로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한국의 부인들의 경우는 중졸과 고졸의 수가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많다. 평

균 교육연수를 보면, 한국의 남편의 경우가 약 11년, 부인의 경우가 약 10년, 일본의 남편의 경우가 약 14년, 부인의 경우가 약 13년으로서, 일본 대상자의 학력이 한국의 경우보다 더 높다.

직업의 형태에 있어서는, 한국의 남편의 경우는, 완전 고용직이 32%로서 가장 많지만, 자영업도 31.1%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남편의 경우는, 완전 고용직이 83.0%로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부인의 경우는 55.7%가 전업주부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37.2%가 전업주부이다.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는 가내업 혹은 자유업이 전체 대상자의 14.0%로 가장 많고, 완전 고용직과 자영업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부인의 경우는 다른 형태보다도 시간제 고용직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41.1%로 가장 많다. 직업의 종류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부부모두 자영업이 가장 많고, 일본의 경우는 남편은 관리직이, 부인은 비숙련직이 가장 많다. 주관적으로 인정한 생활수준은 5단계 평정 중에서 양국의 부부모두 「중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다.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핵가족의 비율은, 한국(81.3%)보다도 일본의 경우(85.0%)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한국이 2.53명, 일본이 2.21명으로서,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 자녀수가 많게 나타났다.

3. 조사방법 및 시기

조사방법으로는 개별 자기기입법으로서, 부부각자가 각각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했다. 1992년 3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설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관계 연구자 3명에게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본 조사는 한국의 경우 1992년 4월 3일에서 4월 16일까지, 일본의 경우는 1992년 5월 8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행해졌다.

IV. 결과 및 고찰

1. 가사 및 의사결정 내용의 요인구조 비교

1) 가사내용의 요인구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의 지표는, 한국의 경우는 3개의 요인으로,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제 1요인은 「식사준비」「설거지」「세탁」「방청소」「쓰레기 버리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가사활동이므로 요인명을 「일상적 반복활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요인은 「자녀 훈육」「자녀돌보기」의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인명을 「자녀양육」으로 한다. 제 3요인은 「식료품·일상용품의 구입」「가계·저축관리」「의복관리」로서, 그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과 관리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인명을 「가정의 경제관리」로 한다. 전체 가사내용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율을 보면, 제 1요인인 「일상적 반복활동」이 29.8%로서 가장 높고, 제 2요인인 「자녀양육」은 15.7%이며, 제 3요인인 「가정의 경제관리」는 11.8%이다. 따라서, 이 3개요인이 전체 가사활동의 57.3%를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제 1요인이 「식사준비」「식료품·일상용품의 구입」「설거지」「세탁」「방청소」「쓰레기 버리기」의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인명을 「일상적 반복활동」으로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식료품·일상용품의 구입」이 일본의 경우는 「일상적 반복활동」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 2요인은 「자녀 훈육」「자녀돌보기」「가계·저축관리」「의복관리」의 4개 항목으로 묶여져 있다. 즉, 한국의 「자녀양육」의 요인과 「가정의 경제관리」의 요인이, 일본의 경우는 동일 요인으로 묶여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정의 경제관리활동이 의미상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해, 서로 밀접히 관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자녀양육관이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달라, 일본에서는 자녀가 중학생 단계

〈표 1〉 한국과 일본의 가사내용의 요인구조

내 용	한 국			일 본	
	KHF1	KHF2	KHF3	JHF1	JHF2
식사준비	.735	-.011	.050	.656	.165
식료품·일상용품의 구입	.349	-.039	.876	.563	.317
설거지	.866	.018	.035	.779	.059
빨래	.634	.041	.245	.723	.248
방 청소	.539	.414	-.050	.825	.091
쓰레기 버리기	.522	.461	-.011	.770	.019
자녀의 훈육	-.029	.837	.110	.148	.781
자녀 돌보기	.047	.741	.280	.380	.620
가계·저축관리	-.076	.219	.575	-.143	.722
의복관리	.062	.118	.777	.248	.574
고 유 치	2.981	1.574	1.184	3.919	1.521
기 여 율	29.8	15.7	11.8	39.2	15.2
남편의 가사분담도					
평균(MEAN)	.690	2.209	.956	.556	1.299
표준편차(SD)	.707	1.304	.944	.718	.944
최소치(MIN)	.00	.00	.00	.00	.00
최대치(MAX)	3.20	6.00	5.00	5.17	5.25

- ① 평균득점의 범위는 0에서 8까지이며, 남편의 가사분담도 = 8 - 부인의 가사분담도이다.
 ② 각 요인은 요인부가치가 0.4이상인 항목을 포함한다.
 ③ 분석 방법 : SPSSPC+ : FACTOR, VARIMAX

가 되면 자녀양육에 있어서 관리적 측면이 한국의 경우보다도 강하게 연관되고 있다고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자녀양육」의 측면은 가정내의 다른 일과 명백히 구분되는 영역으로서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경우, 제 2요인명을 「자녀 및 경제관리」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제1요인인 「일상적 반복활동」의 기여율이 39.2%이고, 제2요인인 「자녀 및 경제관리」는 15.2%이어서, 이 2개의 요인이 전체가사활동의 54.4%를 기여하고 있다.

양국 모두 제1요인으로서 구축되고 있는 「일상적 반복활동」의 기여율이 나머지 요인의 기여율보다 높다는 사실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가사활동은 「일상적 반복활동」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가사분담내용의 각 요인별 평균을 보면, 한국의 경우 「일상적 반복활동」에 있어서의 남편의 분담도는 0.69로서 가장 낮고,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남편의 분담도는 2.21로서 가장 높다. 일본의 경우도 「일상적 반복활동」에 있어서의 남편의 분담도가 0.56로서 가장 낮다. 이상과 같이, 양국 모두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서 인식되어져 왔던,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가사활동은 여전히 남편의 분담이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는 여성전담의 영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사결정내용의 요인구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 내용의 요인구조는 한국의 경우는 4개의 요인으로,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의사결정 내용의 제 1요인은 「남편

〈표 2〉 한국과 일본의 의사결정내용의 요인구조

내 용	한 국				일 본		
	KDF1	KDF2	KDF3	KDF4	JDF1	JDF2	JDF3
집·아파트 등의 선택	.367	.561	.064	-.108	.527	.510	.154
전자 제품의 구입	-.046	.059	.126	.733	.532	.306	.288
자녀의 진로	.077	.745	.030	.218	.788	-.538	.030
부인을 위한 물건 구입	-.307	.156	.601	.324	.045	-.315	.779
남편을 위한 물건 구입	.565	.218	-.093	.503	-.009	.690	-.158
자녀수 등의 가족계획	-.111	.749	.014	.005	.799	.073	-.026
남편의 용돈	.744	.031	-.103	-.018	.076	.747	.025
휴일·휴가등의 계획	.771	.034	.155	-.104	.278	.474	.237
부인의 취업	.117	-.039	.863	-.028	.084	.210	.781
생명보험 등의 가입	.235	.403	.401	-.426	.455	.350	.366
고 유 치	2.175	1.538	1.186	1.036	3.036	1.448	1.060
기 여 율	21.7	15.4	11.9	10.4	30.4	14.5	10.6
부인의 의사분담도							
평균(MEAN)	3.333	4.459	5.137	5.784	4.099	3.236	5.725
표준편차(SD)	1.408	.835	1.183	.984	.811	1.209	1.047
최소치(MIN)	.00	2.33	2.00	2.50	.40	.00	2.50
최대치(MAX)	7.67	7.33	8.00	8.00	6.80	7.33	8.00

- ① 평균점치의 범위 0에서 8까지 이며, 부인의 의사결정도 = 8 - 남편의 의사결정도이다.
 ② 각 요인은 요인부가치가 0.4이상인 항목을 포함한다.
 ③ 분석 방법 : SPSSPC+; FACTOR, VARIMAX

자신을 위한 물건 구입, 「남편의 용돈」, 「휴일·휴가 등의 계획」의 3개 항목으로, 그 내용이 남편 개인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므로, 요인명을 「남편의 개인적 영역」으로 한다. 제 2요인은 「집, 아파트 등의 선택」, 「자녀의 진로」, 「자녀 수 등의 가족계획」의 3개 항목이며, 그 내용을 보면 부부의 개인적 영역 이외의 가족 전체와 관련이 있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명을 「가족 생활관리」로 한다. 또한 제 3요인의 의사결정 내용은 「부인을 위한 물건 구입」, 「부인의 취업」으로서 부인 개인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므로, 요인명을 「부인의 개인적 영역」으로 한다. 제 4요인은 「전자제품 구입의 결정」, 「생명 보험등의 가입」으로서, 주로 가정 경제적인 면에서의 의사결정 내용이므로, 요인명을 「가정 경제적 영역」으로 한다. 각각의 요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행위에 대한 기여율은, 제 1요인이 21.7%로서 가장 높고, 제

2요인이 15.4%, 제 3요인이 11.9%, 제 4요인이 10.4%이고, 이 4개의 요인이 전체 의사결정 내용의 59.4%를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사결정 내용의 제 1요인은 「집, 아파트 등의 선택」, 「전자제품 구입의 결정」, 「자녀의 진로」, 「자녀 수 등의 가족계획」, 「생명 보험등의 가입」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제 2요인인 「가족생활관리」와 제 4요인인 「가정경제적 영역」의 내용이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져 제 1요인을 이루고 있다. 즉, 이 제 1요인에는 경제적인 면도 포함해서 가족원 전체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인명을 「가족의 경제적 생활관리」로 한다. 제 2요인은 「남편 자신을 위한 물건 구입」, 「남편의 용돈」, 「휴일·휴가등의 계획」의 3개 항목으로, 한국의 제 1요인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요인명을 「남편의 개인적 영역」으로 하며, 제

3요인은 「부인 자신을 위한 물건 구입」 「부인의 취업」으로서 한국의 제 3요인과 동일하다. 따라서, 요인명을 「부인의 개인적 영역」으로 한다. 「휴일·휴가등의 계획」의 항목이, 양국 모두 「남편의 개인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휴일·휴가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는 가족 전체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남편의 직장 사정을 중심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어 진다.

의사결정 내용의 요인별로 부인의 의사결정도의 평균치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가정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인의 의사결정도(5.78)가 가장 높고, 「남편의 개인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인의 의사결정도(3.33)가 가장 낮다. 일본의 경우는 「부인의 개인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인 자신의 의사결정도(5.73)가 가장 높고, 「남편의 개인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인의 의사결정도(3.24)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남편과 부인은 개인을 위한 행위에 있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고, 가족 전체를 위한 행

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남편과 부인이, 자신을 위한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과 다를 바가 없지만, 「가정경제적 영역」은 부인의 의사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정경제적 영역」이 일본과는 달리 독립된 요인으로서 추출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가정경제적 영역이 다른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의사결정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부의 가치관에는 한일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유추되어진다.

2. 부인의 취업, 남편의 가사분담도, 부인의 의사결정도, 부부의 결혼만족도

1) 한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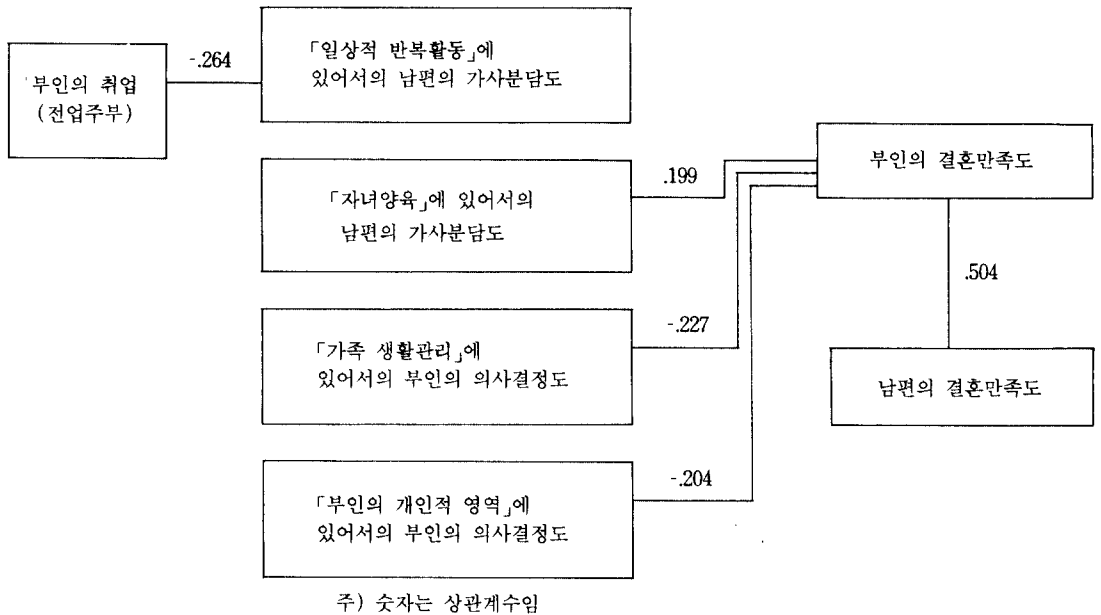
〈표 3〉의 한국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의 취업과 남편의 「일상적 반복활동」은 역상관을 보

〈표 3〉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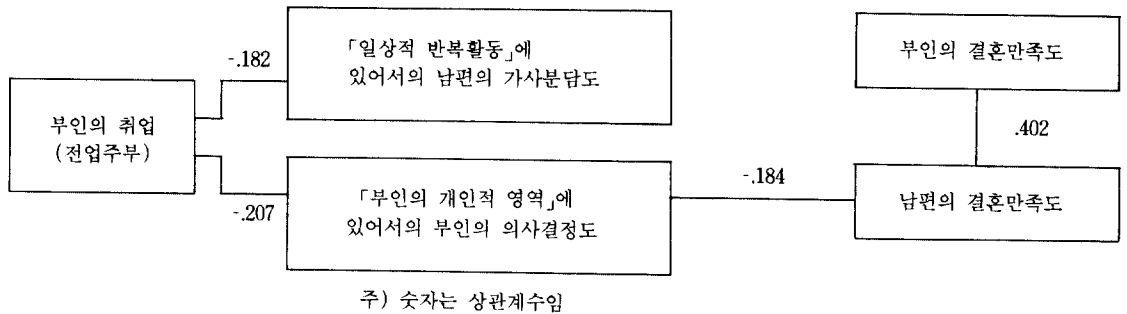
			부인의 취업	부인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	남편의 가사 분담도	일상적 반복활동	-.264**	.055	.093
		자녀양육	-.059	.199*	.154
		가정의 경제관리	-.114	-.057	-.040
	부인의 의사결정도	남편의 개인적 영역	-.158	.075	-.036
		가족 생활관리	-.102	-.227*	-.163
		부인의 개인적 영역	-.177	-.204*	-.105
		가정경제적 영역	-.120	-.137	-.070
남편의 결혼만족도			.046	.504**	
부인의 결혼만족도			.023		
일본	남편의 가사 분담도	일상적 반복활동	-.182*	-.017	-.108
		자녀 및 경제관리	.116	.081	.093
	부인의 의사결정도	가족의 경제적생활관리	-.116	-.037	-.010
		남편의 개인적 영역	-.161	.061	.142
		부인의 개인적 영역	-.207*	-.181	-.184*
남편의 결혼만족도			.076	.402**	
부인의 결혼만족도			.076		

① * P < .01, ** P < .001

② 「부인의 취업」 변인은 전업주부를 1로하고, 취업 및 자영·내직의 경우를 0으로 한 가변수(dummy variable)이다.



〈그림 2〉 한국 부부의 상호작용 모델



〈그림 3〉 일본 부부의 상호작용 모델

이고 있다. 이것은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보다도 취업주부(자영·가내업 포함, 이하동일)인 경우의 남편이, 가정내 「일상적 반복활동」의 분담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부인의 취업이 여러 가사영역중 특히 남편의 가정내 「일

상적 반복활동」에의 참여를 높이는 주요한 변수의 하나임을 지지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인의 취업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부인의 취업여부가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은 보이지 않고 있

다. 그 대신,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남편의 분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 생활관리」 및 「부인의 개인적 영역」에 있어서 부인 자신의 의사결정도가 낮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남편의 참여도가 높고, 가정생활 및 부인에 관한 일에 있어서 부인의 상대적 의사결정도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 남편의 상대적 의사결정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가정 및 가족에 대한 남편의 관심도가 높고 특히 부인 자신과 관계가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남편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취업상태나 남편자신의 가사분담도 및 부인의 의사결정도 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남편의 「자녀양육」에의 참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생활관리」 및 「부인의 개인적 관련영역」에 있어서 남편의 의사결정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며, 그 영향으로 인해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촉진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경우

<표 3>의 일본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는 남편의 「일상적 반복활동」의 분담도가 낮고, 「부인의 개인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인 자신의 의사결정도가 낮다. 다시 말해, 일본의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일상적 반복활동을 남편과 더욱 공유하고 있으며, 부인 자신과 관련있는 영역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다른 하위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개인적 영역」에서 남편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

서 일본의 남편은 부인에 관한 일에 대해 남편 자신이 결정해 주는 것이,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남편 자신의 역할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부인에 대한 관심도와 배려가 높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는 반대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촉진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부인의 취업이 부부 상호작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남편의 가사분담도, 부인의 의사결정도, 그리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라는 3개 차원의 부부 상호작용구조와 부인의 취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통문화적인 비교연구를 하였다.

먼저, 가사내용 10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3개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고, 의사결정내용 10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4개요인으로,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3개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가사내용과 의사결정의 내용의 요인구조를 한일간 비교했을 때, 가사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의 「자녀양육」과 「가정의 경제관리」의 두 요인이, 일본에서는 「자녀 및 경제관리」라는 한 요인으로 묶여져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내용에서는 한국의 「가족 생활관리」와 「가정경제적 영역」의 두 요인이, 일본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생활관리」의 한 요인으로 묶여져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에 관한 내용과 경제에 관한 내용이 한일간에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녀관과 가정경제관이 양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차이점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도 양국의 가정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각 요인별 평균치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 모두 「남편의 가사분담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부인의 의사결정도」는 남편의 의

사결정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양국모두 가사의 대부분을 부인이 수행하고 있어, 「남자는 바깥 일, 여자는 집안 일」이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식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집안일에 대한 결정은 부부공동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볼 때, 가정의 책임은 부부가 함께 나누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이 가사외의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의 가정내 「일상적 반복활동」의 분담수행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양국모두에 있어서 일치된 결과였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남녀공동참가·공동책임」의 유연성 있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내에서의 남편의 공동적 가사참가가 요구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가정 밖에서의 부인의 취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일상적 반복활동」에 있어서의 남편의 참가율이 높아지고, 또한 「부인의 개인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인자신의 의사결정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취업이, 가정내 부부의 평등적생활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결혼만족도 및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에서, 한국의 남편과 일본의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취업여부 및 「남편의 가사분담도」와 「부인의 의사결정도」의 하위요인과 직접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남편과 일본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그 외의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도 부부의 결혼만족을 높이고 나아가 각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척도에 관한 연구-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2호, 85-94.
- 2) 김미하(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207-246.
- 3) 김성희·문숙재(1989), 자아실현성과 공동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63-178.
- 4) 김정옥·최외선·이명교·구향숙(1985), 도시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새마을연구소 새마을연구논문집 5, 25-52.
- 5) 김자혜·김미숙(1990), 화이트 칼라 가족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82-99.
- 6) 김홍은(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세력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79-188.
- 7)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8) 박미령(1988),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연구-성역할태도, 주관적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9) 안병철(1987), 남성의 가족역할 변화요인:한국계 이민가족과 이민예정자 가족 비교연구, 한양대 사회과학연구논총 6, 263-290.
- 10)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1) 이성희·김태현(1989),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서울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09-126.
- 12) 임정빈·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권 3호, 117-132.
- 13) 최규련(1990),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편, 「가정학연구의 최신 정보Ⅲ-아동학·가족학」 교문사, 183-239.
- 14) 최규련(1993),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285-315.
- 15) 최신덕(1986), 도시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집.
- 16) Brayfield, A.A.(1992), Employment Resources and Housework in Canad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30.

- 17) Coltrane, S. & Ishii-Kuntz, M. (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43-57.
- 18) Locksley, A. (1980), On the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arital Adjustment and Compan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337-346.
- 19) Rodman, H. (1972),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2, 50-69.
- 20) Saenz, R., Goudy, W.J. & Lorenz, F.O. (1989),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Marital Relations on Depressin among Mexican American Wom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39-251.
- 21) Spanier, G.B. & R.Lewis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39.
- 22) Spitze, G. (1988), Woma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95-618.
- 23) Stephen A.A., Russell, C.S. & Schumm, W.R.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24) Vannoy, D. & Philliber, W.W. (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87-398.
- 25) 金恩美・本村汎 (1992), 夫婦間の家事分擔と意思決定の認知差に関する日韓比較研究, 大阪市立大學生活科學部紀要, 第40券, 229-237.
- 26) 牧野カツコ (1989), 母親の就勞化と家族關係, 日本教育社會學會編, 「教育社會 學研究」44集, 50-70.
- 27) 長津美代子 (1977), 夫婦間平等の程度測定——ホワイトカラ-夫婦とブル-カラ-夫婦の比較, 家族研究年報, No.3, 11-25.